

경쟁 체증의 시대, 한국 법률시장을 둘러싼 안팎의 경쟁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로펌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낸 한국 로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로펌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며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팀을 신설하고, 멀리 중동과 모스크바까지 현지사무소를 열어 변호사를 내 보내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주요 한국 로펌의 발전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올해 우리 로펌은...



‘해외에만 사무소 8곳’ 지평

유라시아 대륙에 법률영토 구축

변호사공익대상도 수상

지난 4월 법무법인 지평이 모스크바 사무소를 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중국과 동남아에 이미 일곱 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해외업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지평이 러시아에도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물론 2005년 발족한 러시아·중앙아팀을 중심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연장선상에서의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 확대다.

배지영 변호사, 두바이 파견근무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영국계 로펌인 Pinsent Masons 두바이 사무소에 배지영 변호사가 파견근무를 시작, 지평은 중국과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법률영토를 구축했다.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가동하며 가장 활발하게 해외업무를 수행하는 로펌 중 하나가 지평으로, 지평의 이러한 경쟁력은 외국 로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지평은 IS전선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한 한국 대기업의 현지법인이 국내 증시에 진입하는 U턴 상장의 첫 사례가 될 케이스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본사와 해외사무소를 연계한 수많은 사건이 의뢰되고 있다는 게 지평 관계자의 설명. 특히 지평의 양곤사무소가 있는 미얀마 등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현지의 일본 로펌 사무소를 제치고 지평에 자문을 의뢰할만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일찌감치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평은 올 초 대한변협과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으며, 변협이 시상하는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도 수상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

요컨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진취적 자세와 함께 ‘나눔과 배려, 참여’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파하는 곳이 지평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리걸타임즈가 최근 실시한 ‘근무 희망 로펌’ 설문조사에서 지평을 꼽은 사내변호사들은 ‘동남아에서의 높은 경쟁력’ ‘상대적으로 좋은 분위기’ ‘합리적인 조직 문화와 선한 성품의 구성원들이 마음에 든다’ ‘타 대형 로펌과 달리 좀 더 수평적인 관계이고, 어소시엇 변호사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의 답변을 지평을 희망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제주서 창립 15주년 행사

지평은 지난 5월 해외지사를 포함한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여기서도 지평의 15년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자세를 다짐했다는 후문이다. ■